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12화 빔비사라왕



**다** 음날 싯다르타를 감시하던 신하는 싯다르타가 라즈기르의 동쪽 바이바라(Vaibhara)산과 중간에 위치한 제티안(Jethian)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그곳은 높은 언덕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만약의 경우 싯다르타를 아무도 모르게 체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빔** 비사라왕이 산정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그곳의 큰 나무를 등지고 매우 엄숙한 자세로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있는 싯다르타가 있었다. 그런 모습이 하도 거북해 감히 접근할 마음을 잃고 멀리서 걸음을 멈춰선 채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싯다르타가 선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잖나이까? 나는 설산의 중턱에 있는 코살라의 제후국인 카필라바스투의 왕자 싯다르타라 하옵니다. 성(姓)은 태양의 후에, 그리고 종족은 사카족이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출가했고 지금은 그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고행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잠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침에 성문을 나설 때는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의심 하나만 발견되어도 이 힘없는 이방인 고행자를 체포해 끌고 오겠다고 의기양양 했었는데, 싯다르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감히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기품을 느끼며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동안 왕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싯다르타의 눈이 서서히 열렸다.

“위대한 마가다의 대왕께서 어찌해 이곳까지 행차



**“내** 지금 처음으로 그대를 만났으나 첫눈에 따뜻한 정을 느끼며 마음이 서로 통함을 알 수가 있소. 도대체 무슨 말 못할 곡절이 있어 나라를 버리고 출가까지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혹시 예언가의 말처럼 전륜성왕의 위업을 이루는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마가다국의 반을 쪼개서 그대에게 줄 것이니 나와 힘을 합하면 진정한 전륜성왕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현명한 사람은 때를 알아 취하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트리바르가(Trivarga, 法·財·愛)를 모두 갖추면 그를 일러 세상의 대장부라 하는 것 아니요? 싯다르타 왕자여,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코끼리의 등에 타고 나의 궁전으로 돌아가 앞날의 원대한 꿈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 대한 마가다의 라자시여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매우 뜨겁게 받았나이다. 내 이미 라자의 은근한 마음 알았으니 구태여 거슬리는 말은 아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나의 솔직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두려움으로부터 참다운 해탈(解脫)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마저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와서 어찌 오욕(五慾)을 찾아 되돌아 갈 것입니까. 사나운 맹수나 독사 따위도 두려워 하지 않으나 오직 오욕의 구렁텅이에 다시 걸려 떨어져 헤어나오지 못할까 심히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하(四天下)를 호령하였지만 다시 트라야스트립사(刀利天)를 욕심내고 사크라(帝釋, Sakrodevndral)의 반을 얻고도 다시 나머지만다 얻으려고 도모(圖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욕의 경계(境界)는 도(道)를 행하는 사람의 원수로서 비록 일천개의 팔을 가진 역왕(力王)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라마(Ramal)선인도, 나후사(Nahusa, 農沙)왕도 다 오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륜성왕이 되신 분들도 것처럼 같구했다 무너지는 오욕(五慾)이니 하물며 우리 크사트리아(Ksatriya, 왕과 무사계급)들이 눈 앞에 있는 오욕의 유혹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다(Sunda, 孫陶)와 우파순다(Ucasunda, 鉢孫陶)의 두 아수라(阿修羅)형제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같이 나서 사랑했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죽이고 그 이름마저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 탐하는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맙니다.



**결** 국 까마(Kama, 慾望)는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더 큰 까마로 인하여 파멸되고 마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파멸시킬 것입니까? 내가 오욕(五慾)의 유혹을 뿌리치고 약속된 왕관도 버리며 출가를 단행하니 내 마음 맑고 시원하기가 마치 독사의 아가리를 벗어난 듯 하더이다. 나는 오욕(五慾)의 까마를 버렸기에 출가한 것이고 지금은 인간 최고의 이상을 바라보고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깨달음에 도달하여 붓다(Buddha)가 될 것입니다.”

“사카의 왕자시여, 그대가 결국 붓다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연히 왕자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따름입니다. 붓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두손모아 합장하고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오니 훗날 그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시거든 꼭 한번 더 나를 찾아 가르침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빔비사라 왕은 싯다르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싯다르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빔비사라왕은 흠뻑한 얼굴로 싯다르타를 뒤로한 채 작별을 하고 떠나갔다. 이 두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